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64호
2020.7.6

시장동향

- 올해 국내 건설수주, 6.1% 감소한 155.9조원
- 하반기 주택 매매 0.7%, 전세 1.1% 하락 전망
-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35% 증가한 161.4억 달러

산업정보

- 건설업 특성에 따른 수익성 기여요인

건설논단

- 건설적인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올해 국내 건설수주, 6.1% 감소한 155.9조원

- 상반기에 3.1% 감소하고, 하반기에 8.4% 감소해 침체 심화될 듯 -

2020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 전망

-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55.9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최대액인 166.0조원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수주가 10% 이상 감소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고 하반기에 8.4% 줄어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표 1> 참조).
 - 상반기의 경우 하반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민간 주택 수주가 발생하고 공공 비주택 공사가 양호한 영향으로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향으로 민간 주택 수주가 위축되어 하반기 침체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2020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7	2018			2019			2020(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47.2	17.2	25.1	42.3	18.5	29.6	48.1	19.2	33.7	52.8
민간	113.3	54.2	58.0	112.2	53.6	64.3	118.0	50.7	52.4	103.1
토목	42.1	21.4	25.0	46.4	21.7	27.8	49.5	18.4	27.8	46.2
건축	118.4	50.0	58.1	108.1	50.4	66.2	116.6	51.5	58.2	109.7
주거	68.5	25.5	31.0	56.5	27.1	38.3	65.4	27.5	32.9	60.4
비주거	49.9	24.5	27.1	51.6	23.3	27.9	51.1	24.0	25.4	49.3
계	160.5	71.4	83.1	154.5	72.1	94.0	166.0	69.9	86.1	155.9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0.4	-21.4	-0.7	-10.3	7.0	18.0	13.5	3.8	13.8	9.9
민간	-3.5	-3.7	1.6	-1.0	-1.0	10.9	5.2	-5.4	-18.6	-12.6
토목	10.3	-7.9	32.3	10.2	1.5	11.0	6.7	-15.3	0.2	-6.6
건축	-6.5	-9.0	-8.4	-8.7	0.7	13.9	7.8	2.2	-12.0	-5.9
주거	-9.8	-18.0	-17.1	-17.5	6.3	23.7	15.8	1.5	-14.2	-7.7
비주거	-1.6	2.8	3.9	3.4	-5.2	2.8	-1.0	3.0	-8.9	-3.5
계	-2.6	-8.7	0.9	-3.7	0.9	13.1	7.4	-3.1	-8.4	-6.1

주 : 202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가 9.9% 증가하는 반면, 민간 수주는 12.6% 감소 전망

-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는 공공기관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 수주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다.
 - 공공 수주는 지난해 48.1조원으로 10년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공사 발주가 증가해 그 규모는 52.8조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할 전망이다.
 - 민간 수주는 상반기에는 토목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모두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03.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14년(66.7조원) 이후 6년래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종별로 토목 6.6% 감소, 주택 7.7% 감소, 비주거 건축 수주 3.5% 감소 전망

-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공공기관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할 전망이다.
 - 토목 수주가 감소하는 것은 공공 발주는 증가하지만, 민간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위축과 함께, 지난해 GTX-A 수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민자 수주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주택 수주는 하반기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방의 주택 수요 여력 감소,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 줄어 전체 수주 감소를 주도할 전망이다.
 - 비주거 건축 수주는 상반기에는 정부의 생활형 SOC 투자 확대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 오피스텔 공사 발주 감소,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이어져 전년 대비 3.5% 줄 것으로 전망됨.

■ 금년 건설투자, 하반기 부진과 함께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

- 2020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4/4분에 급격히 증가한 정부 공사가 상반기에도 이어져 상반기 건설투자는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공사로 인한 증가 여력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 민간 공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부진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함께, 민간 분양 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택 투자 또한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의 비중이 높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하반기 건설투자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는 토목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하반기에 둔화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위축되면서 올 하반기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 투자는 지난 2019년에 민간 플랜트 및 발전공사 기성 증가, 그리고 공공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2020년 상반기에도 정부 투자 증가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 플랜트 및 발전소 완공 공사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건축 투자 중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비주거용 건축 투자는 지식센터 및 오피스 건설 증가 및 정부 생활형 SOC 투입 물량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양호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 민간 기업의 업황 부진으로 인한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표 2> 2020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2020(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32.81	150.12	282.93	131.28	138.51	269.79	124.43	138.50	262.92	125.40	133.20	258.60
증감률	10.1	4.9	7.3	-1.2	-7.7	-4.6	-5.2	0.0	-2.5	0.8	-3.8	-1.6

주 : 202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하반기 침체 영향 최소화 위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와 예타면제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 올 하반기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심화 및 장기화될 수 있는바 정부는 다음 세 가지의 정책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하반기 경기 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조기 발주에 힘쓰는 가운데, 예타면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부족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 주택사업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주택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셋째,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고 진행 중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건설기업들은 하반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 진행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하반기 주택 매매 0.7%, 전세 1.1% 하락 전망

- 수급 불안정으로 임차시장 불안감 가중, 투자자와 실수요자 구분한 정책 시급 -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의 주요 변수 : 거시경제와 매도물량 공급

- (거시경제)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경제 기초여건에 전에 없는 유동성 장세를 보이겠지만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영향이 하반기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국내외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음에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해외는 국가의 보조정책이, 국내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 때문으로 분석됨.
 - (금리, 실물경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주요국도 마찬가지임. 이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수 있으나 상반기 실업률 상승, 물가상승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하방 압력이 더욱 우세할 것으로 판단됨.
 - (유동성) 3기 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 증가에 따른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만, 정부가 대체 보상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과거 대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전망이다.
- (매도물량 공급) 정책 요인으로 인해 기존 주택의 매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 법인에 대한 압박으로 하반기 매매 물량이 풀리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매매 물량은 장기 보유를 위해 묶이고 반대로 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 물량은 감소해 수급 불일치로 인한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 6·17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다시금 규제지역 내 최적 입지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큼.
 - (지방) 개발 호재에 따른 수요가 국지적으로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규제지역 추가로 차단당할 것임.

상반기 상승세 꺾이며 상고하저 흐름…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임차시장의 불안은 가중

- 하반기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겠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금융·세제·정비·대출 등 규제 수준을 감안할 때 서남부를 중심으로 한 상반기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렵지만, 몰려 있는 수요가 감소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돼 급격한 하락 전환은 어려움.
 - (지방) 상반기 지방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가 8월 이후 차단당해 상반기와는 달리 0.2%가량의 하락이 예상됨.

-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상반기 상승률을 초과한 1.5%로, 연간 2.6% 상승이 예상됨.
 - 정부의 매입 규제와 실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전세 물량 일부를 담당했던 법인과 갭투자자가 사라지면서 공급 감소가 예상됨. 하반기 시행을 단언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역시 혼란을 가중할 전망이다.
 - 한편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매입 의지를 꺾어 그중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 올해부터 하락세 보일 수도권 공급은 2021년 더 줄어들며 전세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 말 대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	연간 ^{*)}	
매매	전국	1.5	1.1	-0.9	0.6	-0.4	2.0	0.1	2.1
	수도권	2.4	3.3	-1.0	1.4	0.5	3.1	0.3	3.4
	지방	0.7	-0.9	-0.9	-0.2	-1.1	1.0	-0.2	0.8
전세(전국)		0.6	-1.8	-1.4	0.1	-1.3	1.1	1.5	2.6

주 :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020년 하반기와 연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 공급은 인허가 45만호, 분양 28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7.8%, 10.9%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 (인허가) 경기 악화로 공공부문은 전년 대비 투자를 늘릴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부문의 감소세가 큼.
 - (분양) 최근 미분양 물량 해소세 등을 볼 때 하반기 분양시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 해소는 더더 지역별·상품별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수익형 부동산은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실수요자 시장인 임차시장 과열 우려돼 정부의 적절한 대응 필요

- 하반기 역시 상반기에 이어 투자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진행하겠지만,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정밀하게 구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하반기에도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공급 신호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장이 뜨거운 것은 여전히 주거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받아들여야 함.
 - 또한,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 있는 상품과 지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사업자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가오는 3기 신도시 건설 및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시장 선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전략으로는 분양시장에 대한 시장 선호가 높은 만큼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함. 중장기 전략으로는 보유 자본의 재구조화, 신도시 건설·노후 도시 리모델링 시장에 눈독을 들여야 할 것임.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35% 증가한 161.4억 달러

- 전년 동기 35% 증가했지만, 하반기 수주 환경 낙관적이지 못해 -

202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보다 42.2억 달러 증가한 161.4억 달러 기록¹⁾

- 상반기 기준, 2006년(85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9년(119억 달러) 대비 35% 증가하면서 반등함.
 - 202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회복은 사우디의 아람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프로젝트(18.4억 달러), 알제리의 하시 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16.6억 달러), 후자이라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9.7억 달러) 등 1~2월 집중된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때문임.
 - 비록 전년 대비 상승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 환경은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 환경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림 1>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건수)



- 지역별로는 2019년 36.3억 달러에 그쳤던 중동 지역의 수주가 전년 대비 약 41.3억 달러 증가한 77.6억 달러로 상반기 전체 수주의 48.1%를 차지함.
 - 2019년 57.6억 달러를 기록했던 아시아 지역의 수주도 9.5억 달러 증가한 67.1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41.6%를 차지함.
 - 반면에 16.7억 달러로 2019년 상반기 수주의 14%를 차지했던 유럽 지역의 수주 실적은 4.2억

1)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주 실적(2018년 6월 30일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달러에 그치며 전체 수주의 2.6%를 차지함.

<표 1> 2018~2020년 상반기 지역별 수주 현황

	2018.1.1~2018.6.30		2019.1.1~2019.6.30		2020.1.1~2020.6.30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중동	65.2	37.7	36.3	30.5	77.6	48.1
아시아	89.9	51.9	57.6	48.3	67.1	41.6
북미·태평양	2.5	1.4	3.2	2.7	3.7	2.3
유럽	3.3	1.9	16.7	14.0	4.2	2.6
아프리카	5.3	3.1	3.5	2.9	5.9	3.7
중남미	6.9	4.0	1.9	1.6	2.9	1.8
합계	173.1	100.0	119.2	100.0	161.4	100.0

● 공종별로는 플랜트, 토목, 건축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됨.

- 특히, 플랜트 부문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94.6억 달러로 상반기 전체 수주의 58.6%를 차지함.
- 토목과 건축 부문도 전년 대비 각각 1.7억 달러, 4.8억 달러 증가하며 15.9%와 20.4%의 비중을 차지함.

<표 2> 2018~2020년 상반기 공종별 수주 현황

	2018.1.1~2018.6.30		2019.1.1~2019.6.30		2020.1.1~2020.6.30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토목	38.5	22.2	24.0	20.1	25.7	15.9
건축	36.5	21.2	28.2	23.7	33.0	20.4
플랜트	92.5	53.4	59.8	50.2	94.6	58.6
전기	1.1	0.6	1.3	1.1	3.7	2.3
통신	0.1	0.1	0.1	0.1	0.7	0.4
용역	4.4	2.5	5.8	4.9	3.7	2.3
합계	173.1	100.0	119.2	100.0	161.4	100.0

■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및 저유가 지속 등 하반기 수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

- 202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주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많음.
 - 현재 1,000만명의 확진자와 50만명의 사망자를 기록 중인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2차 대유행에 따른 재봉쇄는 해외건설 수주 시장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의 부진도 중동 및 플랜트 부문 중심의 수주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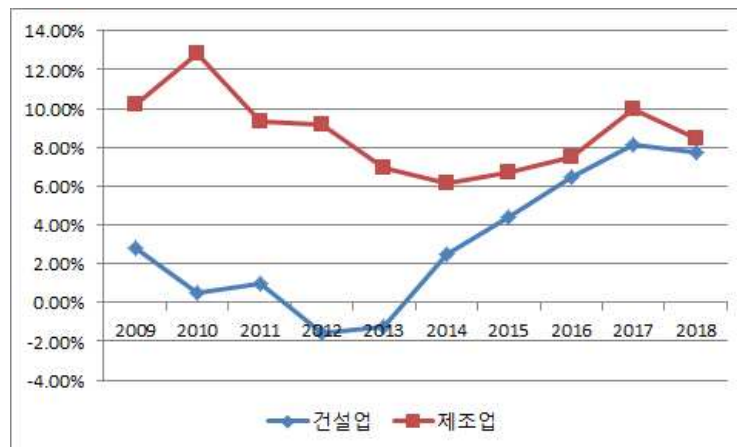
건설업 특성에 따른 수익성 기여 요인

- 건설업, 제조업에 비해 경기 민감도 높고 재무건전성 낮아 -

■ 건설업과 제조업 수익성 격차,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 완화²⁾

- 건설업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제조업과의 격차를 줄임(<그림 1>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과 제조업 간 수익성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다가, 이후 2018년까지 점차 줄어들.
 - 건설업과 제조업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차이는 2012년에 10.81%, 2018년에 0.71%p임.

<그림 1> 건설업과 제조업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변화



■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 영업효율성이 수익성에 가장 많은 영향 끼쳐

- 수익성을 경영효율성과 재무레버리지로 나누고, 그중 경영효율성을 다시 영업효율성과 자산 효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³⁾ 총자산회전율은 2014년부터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다소 우위에 있지만, 나머지 지표는 모두 제조업이 우위에 있음(<그림 2> 참조).
 - 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산업 간 큰 차이를 보이다가 이후

2)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건설업 수익성 기여요인 분석 및 활용 방안”의 일부 내용을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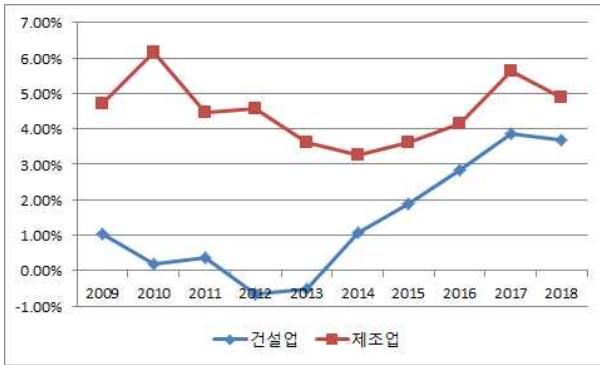
3) 듀퐁(DuPont) 재무분석 시스템은 수익성(자기자본순이익률, 순이익/자기자본)을 경영효율성(총자산순이익률, 순이익/자산)과 재무레버리지(자기자본승수, 자산/자기자본)으로 분해하고, 이 중 경영효율성을 다시 영업효율성(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매출액)과 자산효율성(총자산회전율, 매출액/자산)으로 분해하여 어떤 재무지표 항목이 수익성 개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임.

점진적으로 차이가 완화됨. 이는 앞서 살펴본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유사한 추이임. 결국, 매출액 순이익률, 즉 영업효율성이 건설업과 제조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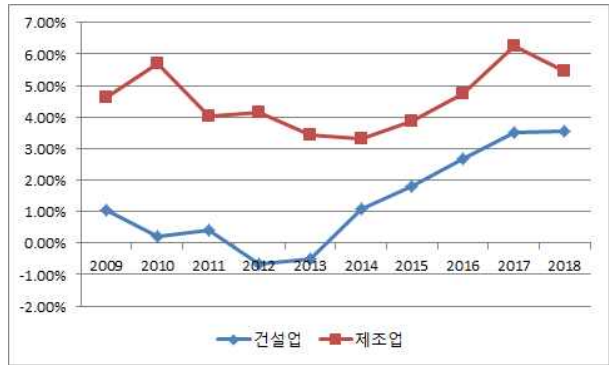
- 총자산회전율은 두 산업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2014년부터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높음.
- 건설업 자기자본승수는 지속해서 하락하지만, 제조업보다는 자산 중 부채의 비율이 높음.

<그림 2> 건설업과 제조업 재무지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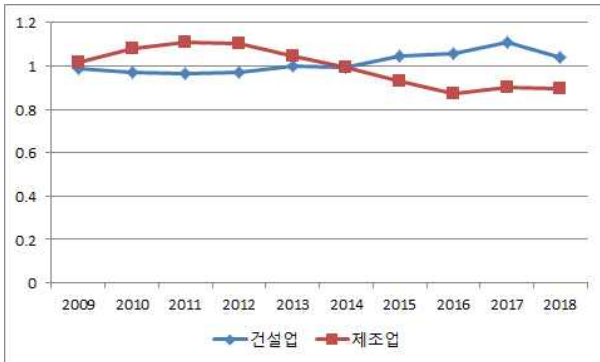
Panel A : 총자산순이익률(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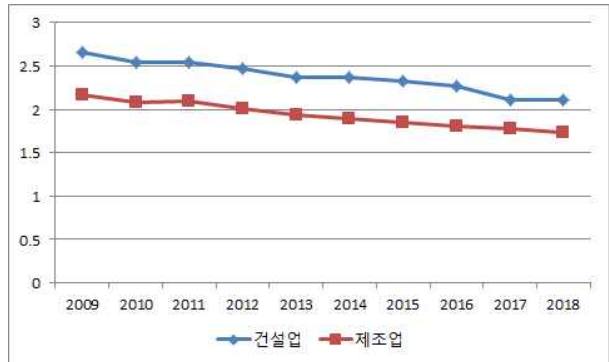
Panel B : 매출액순이익률(단위 : %)



Panel C : 총자산회전율(단위 : 포인트)



Panel D : 자기자본승수(단위 : 포인트)



자료 : 기업별 개별 재무제표 자료 재가공.

■ 건설업의 높은 경기 민감도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대한 고려 필요

-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크게 떨어진 두 산업 간 수익성 격차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의 특징을 보여주며, 특히 해당 시기에 건설기업의 비용 요인과 대손 위험이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건설업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의 수익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업의 수익성 개선 현상이 전반적인 경기 여건의 호조에 기인한 것이지 건설업 자체의 경영 여건이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건설적인 ‘서울시의 건설 일자리 혁신’

5월 28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수 사업체엔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과거 건설업 3불대책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지급 금액을 매년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주는 정책을 구사한 바 있으나, 추가 예산 반영 없이 제도를 시행한 탓에 건설업계에선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발표는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 보장,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 해결,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계약 상대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적정 공사비 확보 역시 공사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자는 뜻이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휴수당은 공사비에 반영하되 차후 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금액의 지출을 막고 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현행 제도에

서는 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 상대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휴수당 등 각종 비용이 당해 현장에서 부족한 경우 증액 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낙후되고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내국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역시 사회복지 안전망의 확충이 계속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정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도 좋고, 더 진일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해 관련 정책이 전국 단위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공공재정의 실질적이고 빠른 낙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판단된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현재 공공 공사비 계상과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간다면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질적 뉴딜 정책인 셈이다. <세계일보, 2020.6.23>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